



오현주 현) 21대 국회의원 장혜영 정무수석보좌관\*

## 10년 동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탄핵 촛불이 한창일 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외침이 등장했고 사회 곳곳에서 미투(#Metoo)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2020년 미투(#Metoo) 이후의 첫 총선이 치러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회의 정치생태계는 느리게 진화하고 있다.

- ▶ 21대 국회 첫 여성부 의장의 탄생
- ▶ 여성의원 비율 300명중 57명, 여전히 19%
- ▶ 지역구 여성의원 300명 중 29명으로 약 10%
- ▶ 국회 전체 보좌진 가운데 여성은 664명으로 10명 중 3명꼴

## ▶ 4급 여성 보좌관 8%에 불과

여성대표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대표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구 여성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 대표들을 받쳐주는 실질적인 보좌진까지 살펴보면 변화의 발걸음은 더디다. 하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분명 여성들의 삶이, 여성들의 정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글을 쓰는 나는 현재 정의당 비례 2번이었던 장혜영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 단 8%에 불과한 여성 4급 보좌관이 된 배경에는 삶의 기본값으로 페미니즘을 장착한 청년 여성 국회의원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조금 더 덧

\* 현) 21대 국회의원 장혜영 정무수석 보좌관

전) 정의당 중앙당 대변인

현)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마포구 바선거구 후보 (20.31% 득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마포을 후보 (8.87% 득표)

불이자면 나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정의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정의당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32살의 나이로 마포구 의원으로 출마해 20.31%를 득표했고 약 2%p차이로 아깝게 낙선했다. 첫 공직선거 출마에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망원1동 주민들에게 2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유권자 5명 중 한 명이 나를 선택하는 감격을 누렸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 기대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했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마포라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정당 활동을 하며 협동조합을 만들고 다양한 지역활동을 진행했다. 10년 동안의 지역활동을 이 지면에 다 담기 어려우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활동에는 언제나 유유히 페미니즘이 녹아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2010년에는 구의원으로 출마했고 10년이 지나 2020년에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나에게 비친 지역사회라는 공간은 어땠을까? ‘총선현장에서 여성 후보자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청탁받고 살짝 망설여졌다. 정치인이 되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데 있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세세히 설명하고 총선 기간이 얼마나 성차별적이었는지 증언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 나 또한 비켜나 있지 않다. 하지만 서울 마포라는 공간이 아주 특수하거나 나의 경험이 특별할 수 있어도 나에게 여성임이, 페미니스트임이 약한 고리로만 작용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다. 쉽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낀 희망의 기운들을 솔직하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2020년 총선에서 페미니스트는 어디에나 있었고 페미니즘은 지역사회도 강타했다.

## 여성유권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선거는 흔히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된다. 그만큼 격렬한 경쟁의 공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곤경에 처하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선거 기간 동안 나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환호하고 지지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은 20~30대 여성이거나 할머니들이었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적극적 지지의사는 놀라웠는데 나는 그들을 ‘반달눈’이라고 불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저 멀리서부터 환호하며 다가오는 모습, 어쩔 줄 몰라 하는 환한 미소를 눈에서부터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절실히 보였다. 꼭 당선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정말 당선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만들었다.

여전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남성들로 가득하다. 내가 출마했던 마포구를 지역도 당시 현역 의원이 손혜원 의원이기는 했지만 정청래라는 남성 의원의 귀환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 또한 18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출마한 나는 눈에 띄는 존재였다. 1강 2중이라 우겨보았지만 유권자들 눈에 2강 1약 구도였고 약체인 후보는 바로 나였다.

처음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 작은 정당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기에 지지도를 비롯해 인지도가 무척 낮았다. 특히 20~30대 남성유권자들보다 여성유권자들에게 지지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0~30대 여성유권자들은 단순히 여성후보자라는 이유로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냐라는 태도가 확고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지지도와

〈표 1〉 나에 대한 지지도

성연령대별	후보지지도	비인지호감	비인지비호감	비고
남18~29세	5.5%	29.8%	41.4%	
남30대	8.9%	17.4%	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호감도가 가장 낮은 성연령대별 Top3 : 1위 남30대, 2위 여40대, 3위 남60대</li> <li>• 비인지비호감도 가장 높은 성연령대별 Top3 : 1위 남30대, 2위 남60대, 3위 남18세~29세</li> </ul>
여18~29세	3.4%	38.1%	31.2%	18세~29세 여성은 전체 성연령대별 중 비인지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옴
여30대	4.1%	35.2%	35.7%	

1) 조사기관 : 정의정책연구소

2) 조사기간 : 2020년 3월 1일(토)~3월 2일(일) (2일간)

3) 표본수 629명, 응답률 4.3%, 4.0%p (95% 신뢰수준)

비인지 호감도의 차이이다. 18~29세 여성들은 지지도와 비인지 호감도가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청년여성들은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보여줘봐’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었다.

내가 2010년에 마포에 출마했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젊고 트렌디한 유권자층이 많은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1인 가구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내고, 당시 유행이 시작되던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는 선거전략을 펼치긴 했다. 그렇지만 2010년 당시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짓하는 유권자층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이미 2018년부터 청년유권자 논의에서 ‘20대 남성’은 화두였다. 언론과 각종 토론회에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기획은 넘쳐 흘렀다. 그에 비해 20대 여성유권자들에게 주목하는 기사와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는 2019년 즈음 ‘20대 여성 유권자’에 관한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sup>1)</sup>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고 선거캠프는 기꺼이 여성들의 손짓에 화답하기로 했다. 같은 유권자인데 왜 20대 남성 유권자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정책을 보이지 않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젠더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고. 맹세컨대 나는 모든 성연령대별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한 명 한 명에게 성심성의껏 선거운동을 하고 유세를 했다. 그런데 20대 남성유권자들에게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 솔직히 비인지비호감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 젠더공약이 곧 지역공약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뒤덮인 선거였다. 빅데

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43939](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43939) 정의당은 왜 파주의 여의원기숙사 매점을 주목했나 [인터뷰] ‘20대 여성의 정치적 함의’ 심층 연구한 정의당 조혜민, 오김현주 연구원.

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키워드가 그 어떤 선거와 정치 이슈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돈과 조직이 미약한 소수정당 후보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었다. 알리고 싶은데 길거리에서 사람 보기가 귀하니 인지도를 높이는 것부터 힘들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온라인을 통한 선거캠페인이 중요했고 집집마다 보내는 선거공보물을 읽었다는 사람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만나게 되었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표를 받아보고 선거캠프는 전통적인 40~50대 진보적 유권자층에 호소하는 전략과 더불어 현재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타겟층을 20~30대 여성으로 정했다. 40~50대 진보적 유권자층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했고 20~30대 지역여성유권자에게는 맞춤형 공약을 고민했다.

보수적인 거대 양당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색깔만 파란색, 빨간색을 쓸 뿐 솔직히 차이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어떤 후보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지역에 교통인프라를 놓고 재개발을 하고, 부지 이전을 통해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즐비하다. 2010년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는 막연한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그런 공약들을 하찮게 봤다. 하지만 교통과 인프라는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지역정치를 경험할수록 기본적인 것을 무시했다는 반성이 들었다. 보수는 개발, 진보는 반개발이 아니라 어떤 정치철학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런데 문제는 성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에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다. 마포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서울에서 주거선호도가 지속

적으로 상승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의 관점에서 청년여성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해보니 형편없었다. 관악구와 별다르지 않은 CCTV, 방범벨 수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동률이 있는 지구대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마포라는 수식어는 사실이 아니었다. 소위 보편적인 정책만 추구하다 보면 여성들을 위한 공약, 장애인을 위한 공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은 제대로 고민되지도 논의되지도 않았다. 오현주 선거캠프는 다양한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 무척이나 공을 들였다. 특히 본선거가 이뤄지기 전 예비후보 기간에 보낼 수 있는 예비공보물<sup>2)</sup>의 경우 25세부터 35세까지 여성세대주에게 맞춤형 공약을 실어 예비공보물을 발송했다. 비혼의 여성들이 늘어나는 특성을 감안해 생활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부터 여성안전 공약,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제정까지 선거캠프가 고심하여 짜낸 공보물이 그 결과이다.

이 모든 과정들에 녹아 있는 관점은 이제 젠더공약은 몇몇 페미니스트 후보들만의 공약도, 중앙정치에서의 전유물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젠더공약이 곧 지역공약이다. 더 이상 '여성이 살기 좋은 ○○'이라는 빈껍데기 말로 넘어갈 수 없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20~30대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후보자들은 좋든 싫든 젠더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2) 유권자의 1/10 인구 수 만큼 예비공보물을 보낼 수 있다.

## 총선을 뒤흔든 N번방 사건

2019년 2월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대중의 관심은 미치지 못하다가 2020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곧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되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N번방 문제는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3월에는 N번방 참여자인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를 받기도 했다.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외침은 2019년 내내 이어졌는데 담장을 넘지 못하기는커녕 여성들은 이제 국회와 정치를 뒤집고 흔들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앞 다투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N번방 얘기가 단순히 국회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골목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마저 정책선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현행 선거제가 지역구 중심이다 보니 다양한 시민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대변자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지역구로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이다. 앞서 말했듯 누가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그런 면에서 공보물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역주변에서 선거유세를 할 때에는 갈등에 직면한다. 소위 '보편적인' 시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압박감

은 소위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의 경계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동네 상가의 자영업자들이 힘든 점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말로 여겨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영업자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본인이 자영업자는 아니더라도 가족과 이웃 중 누구 한 명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그런데 유독 여성의 문제는 특수한 문제로 여겨져 공개적인 유세 자리에서 대중연설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게 여겨진다. 누가 금지하는 것도 아닌데 일종의 암묵적인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0년에 나는 당시 청년여성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행복의 마포를 만들겠다는 얘기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N번방에 대한 압도적인 청원 숫자는 말 그대로 여성의 문제를 언제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나는 선거기간 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N번방 문제에 관해서 유세를 진행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유세를 청취했다. 후보자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국회의원 후보가 N번방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이다. N번방 문제에 가장 관심 있는 20~30대 여성들이 아닌 시민들도 이 문제가 들리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선거캠프에서 반성적인 평가로 N번방 관련 문제를 더 전면화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등장하기도 했다. 여성들의 문제가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역사회에서 목도하는 것은 값진 경험이었다.

〈표 2〉 지역구 : 정의당 성·연령별 투표 경향(출구조사/%)

구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18세	2.9	2.5	3.4	15.6	14.1	16.9
20대(19세 포함)	2.9	2.5	3.3	12.4	10.3	14.0
30대	2.3	2.1	2.4	12.6	11.4	13.6
40대	2.3	2.1	2.4	14.2	14.0	14.4
50대	1.7	1.7	1.7	12.0	13.6	10.4
60대 이상	0.7	0.7	0.6	4.3	5.1	3.5

## 글을 마치며

2020년 4월 15일 생애 두 번째 공직선거 출마가 끝났다. 최종적으로 8.87%를 득표했다. 정의당 전체 후보 중 7위를 기록했고 서울지역 정의당 후보 중 최다득표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낙선은 낙선이었다.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운이 좋게도 정치를 시작하면 ‘폐가망신’한다는 공식은 나에게서는 맞지 않았다. 두 번의 선거 모두 마포라는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에게 각인되고 회자되는 선거를 치렀고, 풍족하지 않지만 아쉬움이 없는 선거를 치러냈기 때문이다. 나는 낙선했지만 이번 선거를 당선되는 과정에 있는 선거라 진심으로 생각한다. 또 도전할 것이다.

정의당은 20~30대 여성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N번방 해결을 촉구하는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투표 경향을 보면 18세 생애 첫 유권자에게 높은 득표율을 얻었고, 정당투표에서 18~49세 연령대 여성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넓은 연령대에서 정의당이 지지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당지지율 확장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상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현상은 2017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다시 재연되는 현상이다. 20대의 지지율이 낮을 것이라고만 예측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유권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지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sup>3)</sup>

2020년 총선의 현장에서 나에게 2010년의 선거 경험처럼 “결혼은 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국사회가 누군가의 결혼유무를 묻는 것이 실례라는 인식이 강해졌기에 비혼의 선거후보가 편한 선거공간이 열린 것이다. 한국사회가 변화하고 페미니즘의 물결이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면서 정치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번번이 여성들의 요구가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듯하지만, 이 글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것이었다.

“이제 동네 구석구석에서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페미니즘이 이야기되는 시대다. 10년 만에 선거에 출마했더니 강산이 확 변했다. 다음에 만날 여성유권자들의 모습은 어떨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3) 2020년 총선 직후 개최된 정의당 전국위원회 자료집에서 일부 발췌